

프로야구 전망대

“5월엔 질 수 없다” 발톱 세운 호랑이



KIA 김진우가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의 경기에 선발 출격해 반전의 5월을 위한 스타트를 끊는다. <KIA 타이거즈 제공>

라미레즈·양현종·한기주 마운드 복귀

이범호·김주형 가세...타선 힘 실릴 듯

KIA, SK·넥센 불러들여 광주 6연전

‘잔인한 4월’을 보낸 KIA 타이거즈가 그라운드의 봄을 기다린다.
 새 사령탑을 앞세운 KIA는 부상과 투타의 동반 부진 속에 4월 한달 6승10패로 0.375의 승률을 만드는데 그쳤다. 예상보다 더 잔인했던 4월을 보내며 KIA는 7위 자리에서 5월을 맞았다.
 투타의 부상 공백과 준비되지 않은 선동열 감독의 지기는 야구가 발목을 잡았다. 하위타선의 계속된 침묵 속에 톱타자 이영규마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4월 타타율은 0.218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미완성의 선발진과 주요 전력인 손영민·심동삼·한기주가 완벽치 않은 상태에서 꾸러진 경험부족의 불펜은 5.59의 압도적 방어율을 기록했다.
 역대 기록을 보면 4월 성적과 시즌 최종 성적은 비례 관계였다. 4월 1위팀이 페넌트레이스 1위를 차지한 경우는 21시즌(1982~1998 전·후기 제외, 1999~2000 양대리그 제외)동안 12번. 또 역대 페넌트레이스 1위팀들은 1990년 LG, 1996년 해

태, 2009년 KIA를 제외하고는 모두 4월에 4강을 지켰다.
 2006년 SK가 4월 1위를 달리고도 6위로 시즌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지만 초반 흐름이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초라한 4월을 보낸 KIA, 그래서 5월 반전이 필요하다.
 약재보다는 호재가 많다. 부상을 털고 좌완 라미레즈·양현종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두 선수는 2군 경기에 출전하면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범호·한기주도 5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김주형의 파워도 충전중이다. 불펜의 젊은피 박지훈·한승혁도 선 감독의 강한 조건과 함께 가능성을 보여줬다.
 반전의 5월, 돌아온 김진우가 첫 단추를 꿰다.
 KIA는 이번 주 홈 6연전을 치른다. 주중 SK에 이어 주말 넥센을 상대해야 하는 KIA는 1일 김진우를 선발로 내세웠다.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 이탈했

던 김진우는 지난달 15일 LG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의 임무를 맡았다. 5이닝 5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은 김진우는 26일 한화와의 경기에 두 번째 등판을 했다.
 이날 김진우는 4와3분의2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1사사구 1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우천으로 두 번이나 등판 날짜가 미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5월 스타트를 끊은 김진우는 마운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난 주 에이스 윤석민이 두 번이나 출격하고도 모두 패를 기록하면서 KIA 마운드가 침체됐다. 또 김진우는 양현종·라미레즈가 돌아올 경우 선발·중간·마무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조커다. 김진우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KIA는 휴식일이던 지난 30일 이용규·나지완·신종길 그리고 윤완주·홍재호·이준호 등을 불러 특타를 진행했다. 매끄럽지 못한 연결고리를 가다듬기 위한 노력이 김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3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게임차	연속
1 롯데	16	10	5	1	0.667	0	2승
1 두산	16	10	5	1	0.667	0	1승
3 SK	16	9	7	0	0.563	1.5	1패
3 넥센	16	9	7	0	0.563	1.5	1패
5 LG	16	8	8	0	0.500	2.5	2패
6 삼성	17	7	10	0	0.412	4.0	1승
7 KIA	16	6	10	0	0.375	4.5	1패
8 한화	17	5	12	0	0.294	6.0	1승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서둘러야” 대한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KBA)는 지난 30일 프로 야마추어 야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A는 성명에서 “야마추어 야구의 실력과 인력이 좁은 프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해외로 떠밀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10구단을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구계는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의 내년 1군 진입에 맞춰 10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는 측과 10구단 창단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
 KBA는 “구단 이기주의로 10구단 창단에 반대하는 일부 구단은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의견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선영·유소연 공동 4위

LPGA 모바일 베이 클래식

유선영(26·정관장)과 유소연(22·한화)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8번째 대회인 모바일 베이 클래식(총상금 125만 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선영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 RJT 골프장(파 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섞어 2타를 줄였다.
 이로써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유선영은 유소연과 함께 공동 4위를 차지

했다. 이날 8언더파로 출발한 유소연은 버디를 8개나 잡았지만 보기 1개와 트리플 보기 1개를 범하는 바람에 아쉽게 우승컵에서 멀어졌다.
 최나연(25·SK텔레콤)은 이글 1개, 버디 7개에 더블보기 1개를 묶어 7타를 덜 치는 뒷심을 발휘했지만 전날까지 1언더파에 그쳐 최종합계 8언더파로 공동 20위에 자리했다.
 우승컵은 작년도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인 스테이시 루이스(27·미국)에게 돌아갔다.
 루이스는 이날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섞어 3언더파를 기록, 최종합계 성적이 17언더파 271타가 됐다.
 /연합뉴스



제이슨 더프너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연장 2차 접전 끝에 에니 엘스를 꺾은 뒤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신랑 더프너 우승 키스

PGA 취리히 클래식

‘베테랑’과 예비 신랑의 샷 대결에서 예비 신랑이 이겼다.
 베테랑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8승을 빛나는 남아공의 삶이 있는 골프전설 에니 엘스(43)이고 예비신랑은 12년간의 PGA 무대에서 준우승만 3차례 기록한 제이슨 더프너(35·미국)다.
 더프너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이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파 72)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64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차 연장 접전 끝에 엘스를 꺾고 우승컵을 입을 맞췄다.
 12년째 PGA 무대에서 뛰어난 더프너의

이번 우승은 결혼식을 1주일 앞두고 164번째 대회 출전 만에 이룬 쾌거여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컸다.
 두 사람은 17번째까지 아슬아슬한 파행전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홀에서 모두 버디를 기록해 나란히 19언더파로 연장전에 돌입했다.
 승부는 18번홀에서 다시 펼쳐진 연장 2차전에서 갈렸다.
 더프너는 연장 1차전 상황과 비슷하게 투온에 성공한 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버디 퍼트를 완성했다. 반면 엘스는 역시 투온에 실패하고 파 세이브를 하는 데 그쳤다.
 더프너는 예비신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

손연재 월드컵 첫 메달 후프銅·개인종합 6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국제체조연맹(FIG)이 주관하는 월드컵 시리즈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손연재는 지난 29일(한국시간) 러시아 펜자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결선 후프 종목에서 28.050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위 알리아 가라에바(아제르바이잔), 2위는 다리아 드미트리예바(러시아)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손연재는 다른 종목에서는 곤봉 27.050점, 리본 27.300점, 볼 24.050점을 기록해 개인종합 6위에 올랐다.
 손연재의 종전 월드컵 시리즈 최고 기록은 개인종합 10위였다.
 손연재는 예선에서도 후프 27.900점, 볼 28.125점, 곤봉 27.675점, 리본 28.500점으로 총 112.200점을 받아 개인종합 4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전 종목 결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